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개발
이상근 롯데건설 예산관리부장

“건설산업에서 어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오기를”

“기업 구매 카드를 이용하는 업체가 늘 어날수록 건설산업의 근간도 튼튼해 지리라 봅니다.”

어음 발행을 대체한 대금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구매카드제도의 창안자인 이상근 롯데건설 예산관리부장(46세)은 1998년 IMF가 한창 맹위를 떨치면서 어음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이 카드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기업 구매 카드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즉 어음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수록 건전한 건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1998년 당시 롯데건설 자금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상근 부장은 롯데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똑같이 위변조한 2억원 상당의 쌍둥이 어음에 속아 결제할 뻔했던 사건을 겪었다. 이 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에 신고한 다음 당시 1,000여 개 하도급 업체에 게 매달 2,000여 장의 약속어음을 내주는 상황을 감안해 이러한 어음 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골몰했다. 그 결과 기업이 거래 은행에서 전용 카드를 만들고 납품 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기업구매카드제도를 개발하게 되었다.

즉, 납품 기업은 결제일에 대금을 전액 받거나 필요한 경우 그 전에라도 필요한 액수만 할인해 받을 수 있으며 발주 기업은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은행에 입금시키는 수고 대신 원금만 입금시키면 되므로 어음을 발행했을 때처럼 금리 부담없이 기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은행 역시 어음 발행에 드는



비용, 시간, 인원 등을 줄일 수 있다.

기업구매카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어음의 위·변조 및 남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신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은행에서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발할 수도 없게 되어 원·하도급사 모두 안정적인 거래를 하도록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 이 부장은 1999년 1월 롯데건설 및 거래처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받은 이후 그해 4월 시중에 내놓았으며 함께 출시에 적극 노력한 하나은행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지난 3월에는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했다.

현재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코

오롱건설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이상 업체에서도 기업 구매 카드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부장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져 조만간 건설산업에서 어음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무엇보다 기업구매전용카드제는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온 중소기업과 하도급 대금이 절실한 자금원인 하도급 업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구매카드제도는 어음의 전자 전송 및 수령을 단일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납품 업체들이 불편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부장은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부수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 오고 있다.

그는 22년여 전 롯데건설에 입사한 이후 자금, 영업, 경리 등 본사와 현장 근무를 두루 거친 정통 롯데맨이다. 그는 하루를 쪼개 열심히 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외부인에게 회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업구매카드 역시 격무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아 골몰히 연구하는 것을 즐긴 결과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은 진리”라는 그는 “건설산업의 발전 역시 그러한 인재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정숙진 · 기자 · sjjeong@cak.or.kr